

## 기रो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Danny Leipziger*

세계경제 내에서 경제축의 이동은 기록상으로 잘 입증되어 쉽게 알 수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중국경제가 앞으로 20~30년 동안 얼마나 잘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이 이룩한 경제적 실적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경제가 세계경제의 세력구조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제위기가 선진국으로 인해 촉발되었지만 이의 회복은 선진국이 아닌 신흥시장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잘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신흥시장국들(나는 이들을 신흥경제강국이라 칭하고자 한다)은 이번 위기의 확대심화에 대한 완충효과를 제공해주었다.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선진국들은 재정적 어려움과 그 후유증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부 국가들의 향후 경제성장률에 나쁜 조짐이다.

세계경제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자본이동에 대한 시각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은 자본이동에 대한 개방수준을 종전처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심지어 IMF 내에서조차 엄청난 자본유입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식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왔다. 무역 또한 세계경제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남남무역(south-south trade)또는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이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무역협정들(그것이 FTA 형태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이든)이 도하(Doha)협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무역확대가 어디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는지와 정치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는 연관성이 없다.

내가 2004년~2008년간 위원장 직을 맡았던 성장위원회(Growth Commission)는 성장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가 시사하는 메시지를 강조한 바 있다. 즉, 성장을 위해서는 특정재료가 필요하지만 요리법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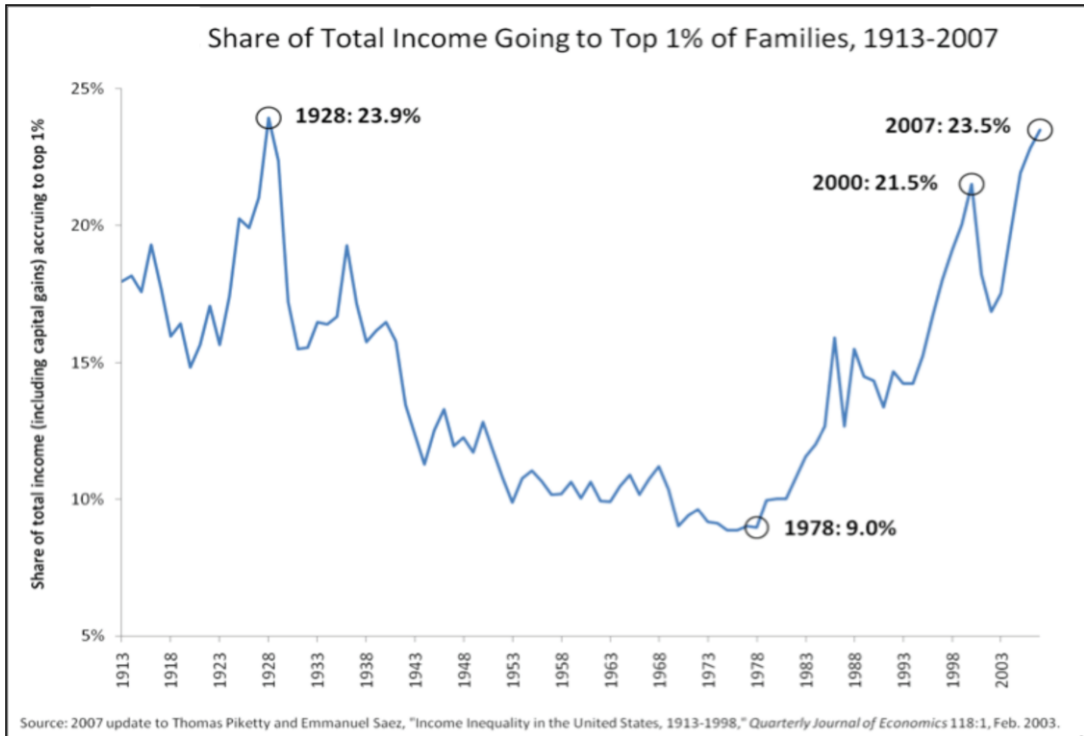
\* 이 글은 2011년 5월 24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국가 간의 격차가 확산(divergence)되는가 또는 수렴(convergence)하는가의 문제였다. 많은 연구가 수렴—즉,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지면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국가 간의 수렴(소득격차 감소)은 국내에서의 격차확대를 수반하고, 그것은 다자주의의 맥락에서 풀어가야 할 하나의 도전과제이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다자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 사실상 경기부양책이나 제2차 양적완화정책(QE2) 중 어느 것도 미국경제를 침체에서 끌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신뢰에 대한 변화가 유용하였는데,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필수적인 신뢰에 대한 변화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이는 누구나 정확히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그것을 대신하지는 못하였다. 신뢰가 결여된 이유 중 하나는 실업률이 매우 높았고, 그러한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07~2009년 동안에 가계의 2/3가 순자산의 감소를 겪었고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득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 이후 미국의 소득분배는 훨씬 더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다.

오바마(Obama)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은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교육,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생산함수의 요소이다. 미국은 교육 면에서 형편없고,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에 이르는 매우 높은 부채를 안고 있다고 말한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 시스템 내에는 유동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이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동성의 흡수는 금리인상만 유발할 뿐이기 때문에, 미국은 성장을 다시 점화시킬 올바른 정책조합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다자주의의 결과물인 미국 내 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2007년도에 미국 인구의 상위 1%가 국민소득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28년 이래 최악의 격차였다. 참고로, 1978년에는 상위 1%가 국민소득의 9%를 차지했다.

### <그림 1>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유럽은 유로존의 지나친 확대와 느슨한 재정감독, 그리고 고정환율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언론계의 거의 모든 평론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유럽 전체, 특히 그리스에 대한 현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 나는 채무재조정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본다. 우선, 유럽은 IMF와 함께 남부 유럽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별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는 재정적자가 GDP의 10%나 되기 때문에 재정부문을 축소하여야 한다. 통화정책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결정되고, 환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대안이 없다. 당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는 그리스가 어떻게 재정적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유로존에 대한 신뢰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리스크는, 유럽 각국을 저성장 상태로 지속시킴으로서 발생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낮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독일의 흑자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 중국 및 여타 BRICs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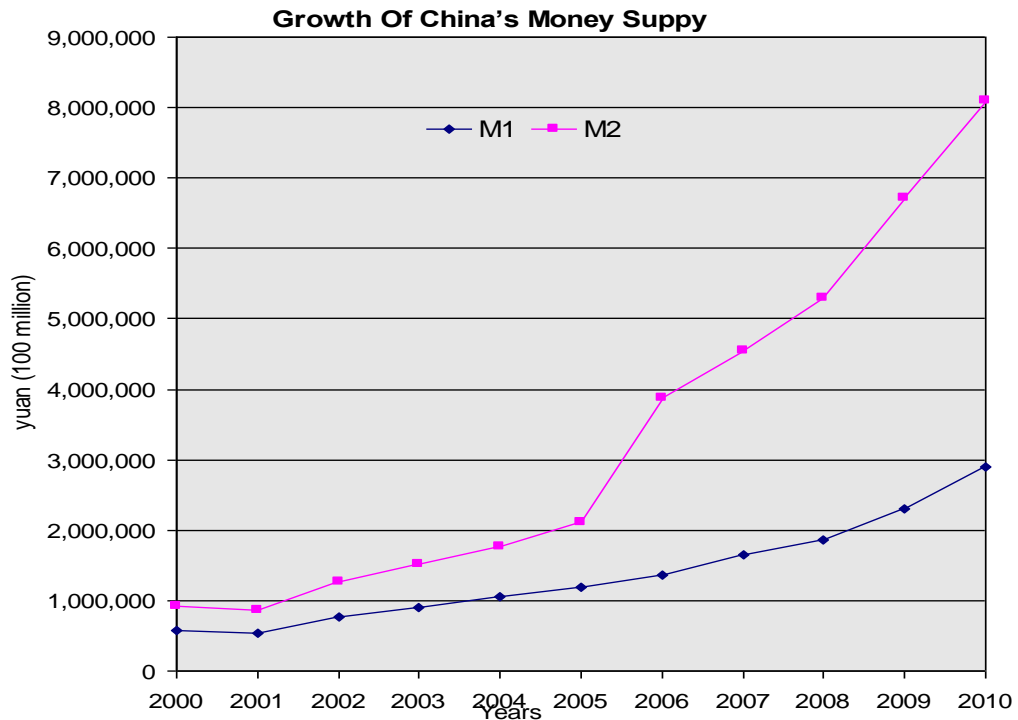
중국 경제의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문제는 G-2가 다자간 시스템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5조 달러(구매력 기준이 아닌 경상가격 기준 GDP 산출에 근거함) 규모의 중국 경제는 사실 연간 10%씩 성장한다. 이는 매년 5,000억 달러의 증가세이다. 이러한 성장 증가규모는 적어도 세계 120개국의 GDP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성장에 다소 조속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즉, 나는 중국이 경제규모에 걸 맞는 모든 책임을 제대로 발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침체 이전에도 세계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들은 이미 많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그 여파로 인해 이러한 요인들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경제시스템이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본이동에 대한 의존도 감소, 부채수준의 증가, 무역마찰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성장원천의 대두 등이 나타날 것이다.

모두가 중국의 환율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는 고용 및 수출을 촉진시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꼭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다자주의에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G-20은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과 환율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고, 또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도 없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통화공급(M2)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통화공급은 8배 증가하였다. 만일 10년간의 연간 성장률이 10%였다면 통화공급은 100% 정도 증가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800%까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가는 억제되어 왔으며, 그리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 <그림 2>



BRICs 국가들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브라질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에는 자국의 환율상승을 원하지 않았던 브라질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기꺼이 취한 부분도 있다. 과거 IMF 내에서는 특정 종류의 자본이동을 저지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1980년대에 칠레가 자본수입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브라질이 자국통화의 절상을 막기 위해서 더 높은 자본수입세를 잇따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브라질은 매우 높은 국내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는 금리도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의 수요와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의 산업정책에 대한 내부적 논란은 많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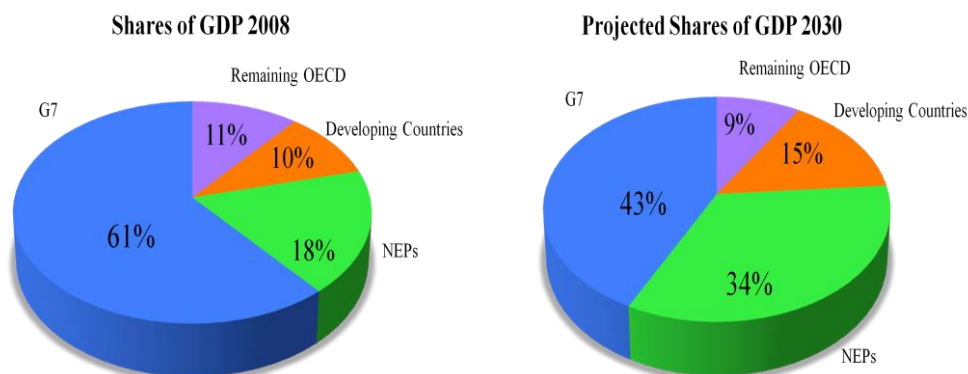
인도의 경우는 매우 높은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그리고 빈곤, 열악한 지배구조(특히 지방차원에서), 국내 인프라의 제약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도는 방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인도가 부상하여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도 중국이 걸어온 경로를 답습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BRICs에 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에너지의존도가 매우 높고, 화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며, 실업률이 높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규모가 아프리카에서는 클지 몰라도, 세계적인 주역이 될 정도로 크지는 않다. 러시아 경제는 비교적 열악한 지배구조를 가진 자원부국과 비슷하다. 러시아는 법치와 다른 이슈들로 인해, 선진그룹인 G-8에 포함될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다.

### 경제력 및 무역 판도의 변화

IMF 및 OECD 그리고 여타 기관들의 평가치를 가지고, 오늘날 G-7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2030년의 비중을 추정하여 그림으로 살펴보면 61%에서 43%로 감소한다(그림 3). 한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강국들은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력의 구조적 이동이 나타날 때, 다자주의의 중요한 측면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림 3>



세계화를 위협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무역체제는 실질적으로 와해된 상황이다. 좋은 소식은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도하라운드 미래 이슈가 아닌 과거 이슈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도하라운드 상징적으로는 중요하게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혹은 WTO를 분쟁조정기구로 만들고, 너무 오랫동안 끌어난 도하라운드는 잊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각국 정부가 협상에 임할 때 각국 내

에서는 항상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간에 다툼이 있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 동안 이득은 항상 손실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큰 것이었다. 문제는 현재 관세가 매우 낮아졌고 무역이 아주 자유로워져서, 도하라운드와 있건 없건 간에 무역으로부터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도하라운드로부터 발생할 추가적인 이익은 각국이 만들어내야 하는 협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다.

세계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자본이동이다. 나는 강력한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토빈세(Tobin taxes)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빈세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브라질이 이에 해당되는데, 자본수입세가 브라질의 정책선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초국경적인 중요한 이슈들은 많이 있다. G-20에서 이와 같은 이슈들이 일부 다루어지긴 하였지만 대다수는 그러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이 조세제도, 부패, 그리고 불법적인 자본이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처럼 초국경적인 이슈들은 다자적 접근방식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기후변화 및 이민문제와 같은 큰 이슈들도 있는데, 이 또한 국제적으로 수용될만한 해결방안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들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스템과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다룰 수 있는 기존의 기구나 수단을 대비시켜보는 것이다. IMF가 그러한 기구 중 하나이다. IMF는 국제적 불균형, 환율, 그리고 초국경적 리스크 등의 감시를 비롯한 일련의 새로운 책무들을 모두 떠맡음으로써 신뢰를 받고 있다.

## 다자주의

IMF에게는 부과된 일들이 많다. 상호평가프로그램의 사무국 역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지도 않은 국가들에 대한 금융안정평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요 금융시장국들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감시역할은 모두 좋은 것들이지만, 지금까지 IMF가 내놓은 안들이 시행된 것은 별로 없다.

다자주의와 관련해서는, 도하라운드를 넘어설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무역

체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도하라운드는 이미 실익을 잃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anny Rodrick은 민주주의와 성장의 역설에 관한 그의 새로운 저서에서, 다른 형태의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세 가지(impossible trinity)’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impossible trinity’란 고유의 통화정책, 고정환율,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또 다른 형태의 ‘impossible trinity’는 민주주의, 국가경제정책, 그리고 세계경제정책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가 고용, 소득, 무역보호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강력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거에 기업이 세계화의 주역이었던 것은 무역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무역이 2000~2007년 동안만큼의 역동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는 2000~2007년이 세계경제 역사상 비정상적인 기간이었던 탓도 부분적으로 있다. 그것이 비정상적이었던 이유는 엄청난 무역증가, 매우 높은 성장률, 매우 낮은 금리, 낮은 인플레이션 등 많은 것들이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이루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업이 세계화 및 다자적 해결방안의 지지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 내 여론지표로 사용되는 Pew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년이 채 안 되는 몇 년 전만해도 75%가 넘는 미국인들이 국제무역은 유익한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1년 전에는 이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미국인들은 미국 내의 수많은 병폐가 세계화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위탁업무(off shoring)도 있지만, 사실 일자리 및 소득이 감소한 것 대부분은 세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미국 내의 구조적 문제와 관계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친(親)다자주의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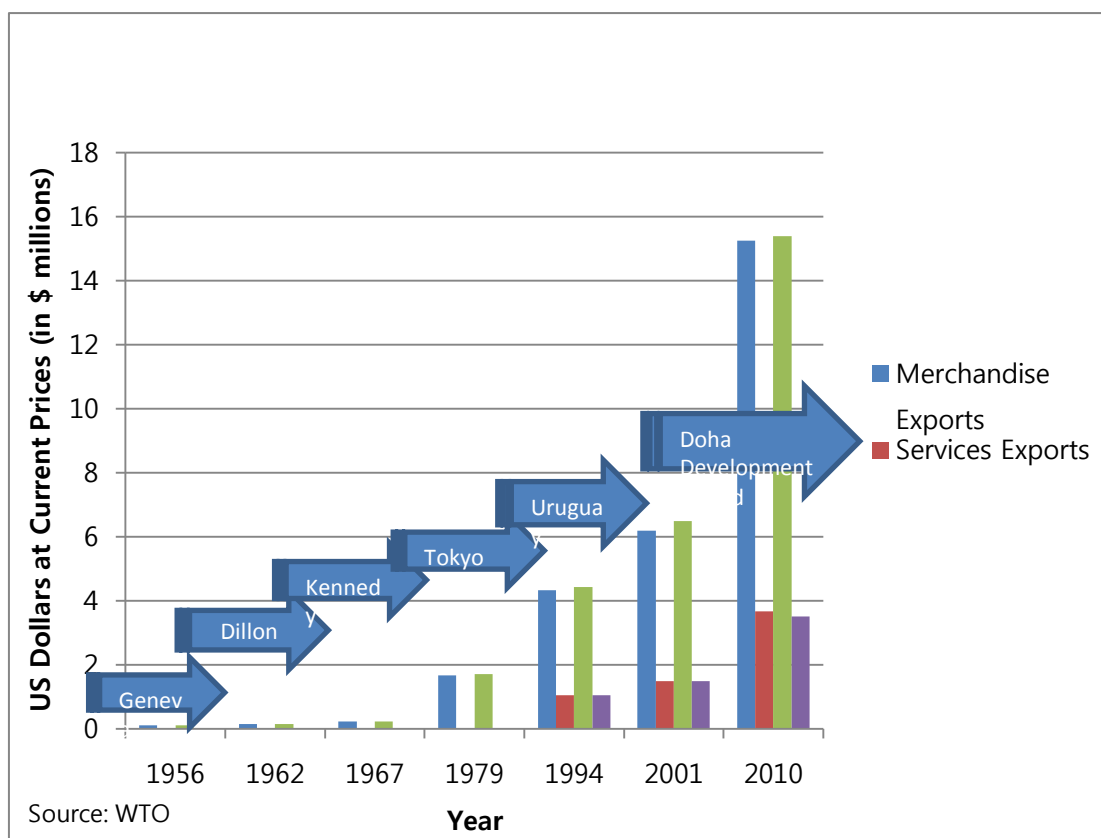
동시에, 일부 불균형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불균형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G-20이 IMF보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오래 전부터 IMF는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진단을 해왔지만 집행 메커니즘(mechanism)이 없었다. 또한, 나는 산업정책면에서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나는 녹색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녹색성장 의제와 경기부양책이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대향적인 거시적 정책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단순히



교량을 다시 도색 한다거나 하는 일 대신에 전략적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합리적인 조치였다. 왜냐하면 미래의 수출시장이 거기에 있고, 한국 정부가 기꺼이 부담을 지고자 할 정도로 중요한 외부효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좀 더 미숙하고 좀 더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보호주의적인 산업정책의 일부 다른 측면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 4>는 도하라운드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보여준다. 우선, 도하라운드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벌써 10년이 되었고, 어떤 시점에서는 그것이 소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의 다자간 협상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 이와 함께, 도하라운드에서조차 다루지 못하는 서비스의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도하라운드에 대한 관련성을 떨어지게 만든다. 도하라운드가 상징적 중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되지 못한다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필요하다.

<그림 4>



누가 다자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G-7이 한 가지 대안이지만, 대부분

의 G-7 국가들은 저성장 및 고(高)부채와 관련된 신통치 못한 정책선택에 당면해 있다. 우선 유럽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거의 소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이 안고 있는 인구구조적 문제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실업, 소득분배, 부채로 인한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일본은 심지어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에도, 15년 동안 저성장의 덩에 갇혀있었다. 근본적으로 일본은 높은 국가부채와 인구구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저성장을 지속해야 할 운명이다. 여기에 한국이 유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일본의 성장을 저해해온 인구구조적 요인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G-7 국가 중에서 캐나다를 기대주로 생각해볼 것을 자주 언급한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상황하에서,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과 경제규모, 훌륭한 국가경영, 그리고 좋은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위기도 잘 극복했다.

BRICs는 흥미로운 정치적 그룹이지만, 그들은 서로 너무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BRICs'라는 용어 외에는 그들을 연결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 이들 국가가 모여 회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자 할 때면, 그 성명은 항상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고 공통분모가 매우 적다.

G-20은 19개국과 EU로 구성된 흥미로운 그룹이다. G-20은 경기부양 프로그램과 글로벌 신뢰회복을 매우 훌륭하게 이루어냈다. G-20이 2009년과 2010년에 이룩한 성취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은 충분히 조직화되지 않은 하나의 클럽에 불과하다는(G-7보다 더 큰 대표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G-20은 집행능력이 없다. G-20은 거시경제적 집행에 있어서는 IMF를 활용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필요한 투자규모는 막대하여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자원에서 나오는 정도로는 안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자본이 두 배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G-20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의 집행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G-20은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나갈 수 있을까?

불균형 및 초국경적 규제에 관한 이슈들도 존재한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자체보다는 오히려 '규제차이에 따른 이익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중요한 이슈이다. 집행능력도 없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세계는 각종 제휴와 연합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누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실제로

분석을 하고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부분을 IMF가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IMF가 신뢰할만한 파트너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대안을 줄 수 있는 현명하고 초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EU는 내부분제에 붙잡혀 있고, 미국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나설만한 처지가 못 된다. 정말 공정하게 말하면, 중국이 OECD에 가입할 경우 그것은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떨어진 수준에서 하게 될 것이다.

## G-20의 역할

한국은 G-20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결과의 대부분은 국내정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한 달 전에 발표된 제2차 양적완화정책(QE2)은 중국이 관련된 불균형 문제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모두가 전세계를 달리로 넘쳐나게 하고 또 원치 않는 자본이동을 유발한 미국을 공격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QE2는 중국이 이 불균형 문제로부터 쉽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G-20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녹색기술과 환경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은 보다 강력한 다른 역할로 확대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의 공조 면에 있어서도 한국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정부의 규모를 걱정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훌륭하였고 또 혁신주도적인 성장도 탁월하였다. 하지만 인구구조 문제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다.

미국에서는 육체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5년 남짓 감소해오고 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분배 측면에서 볼 때 일정 수준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한국을, G-20 내에서 “자신의 체급보다 더 큰 역할을 발휘하는”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반열에 둔다. 어떤 국가들은 다자주의를 몹시 신뢰하고 있다.

프랑스(2011년도 G-20 정상회의 주최국)는 2011년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아마 재무장관을 IMF 총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EU

회원국이다(G-20 회원국 중 최소한 1/4이 EU 회원국이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유럽의 문제들을 넘어서 금융시장의 규제문제, 석유시장 문제, 그리고 개발의제 등 다루어야 할 이슈들이 많다. 이 모든 것들을 프랑스가 다루어야 하는데, 프랑스가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프랑스는 유럽의 걱정거리들에 휩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성공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단기적 핵심과제는 신뢰회복이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자국의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만큼,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경우를 보다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G-7, G-8, G-0, G-2 등 이른 바 ‘G’로 대표되는 세계경제그룹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에, G-20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가 세계화와 다자주의를 신봉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다. G-20이 효율적인 그룹이며, 필요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보자.

## 질의 · 응답

---

**질문** 국제적 충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은 각 개별국가들의 소비나 성장률의 조정보다는 환율의 변동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답변** 나는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현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근에 미국 연준(Federal Reserve)이 했던 것처럼, 시스템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외부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칠레가 단기자본을 통제했을 당시 나는 몇 안 되는 지지자 중 하나였다. 칠레와 같이 매우 개방된 소규모 경제가 핫머니(hot money)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보다 훌륭하게 자국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브라질이 단기자본에 집중을 했더라도 나는 마찬가지로 지지했을 것이다.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다른 유형의 자본유입에 자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국내정책의 운용이라기보다는 중대한 개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브라질이 고금리를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율이 자체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문자 그대로 투기적 단기자본의 유입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의 시각이다. IMF는 입장을 크게 바꾸어(아마도 과잉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자본세에 호의적이 되었다. 나는 자본세의 대상은 1년 미만의 자본이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도하라운드를 넘어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답변** 내가 생각하는 도하라운드의 문제는, 도하라운드를 종결시킨다해도 그리 큰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 이슈들만이 남아 있다. 내가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WTO가 법적 중재 기구(adjudication mechanism)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는 도하라운드가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다. 10년이라면 충분히 긴 세월이었다. 반면에, 자유무역협정(FTAs)이나 다른 협정 하에서 대부분의 무역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하라운드는 상징성을 빼고 나면 크게 상관이 없다.

**질문** 중국 위안화(RMB)의 가치와 무역불균형 간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나는 이러한 불균형들이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불균형들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환율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제적인 압력 때문이든, 아니면 중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든, 환율절상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달러화는 세계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질문** 일부 유럽국가들의 채무재조정 전망은 어떤가?

**답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조치이다. 유로존 탈퇴는 완전히 최종단계이다. 그리고 그리스는 자국 통화정책의 운용실적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에게 유로존 탈퇴를 피하라고 하고 싶다. 그러나 유로존을 떠나기 전의 한 단계로 채무재조정이 있다. 나는 그리스가 부채 일부

를 독일은행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율이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리스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한 채무재조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채무재조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조차도 IMF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지연되고 있으면 이유 없이 많은 돈이 나가게 된다. 물론 부실자산을 정리하면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중국에는 그리스가 성장을 다시 시작할 잠재력을 갖게 된다. 이런 과정 없이는 그리스가 문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그리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EU와 IMF는 2013~2014년에 그리스가 필연적으로 당면할 채무재조정 때문에 또 다시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에서 IMF의 역할이 흥미롭다. 유럽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IMF는 유럽 출신의 총재가 필요한가? 나는 IMF 총재가 유럽인이 아니어도 유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스가 브라질이나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질문** IMF의 총재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사공일 박사가 후보에 속하는가?

**답변** 나는 사공일 박사가 IMF 총재 후보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Washington DC에 소재한 모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IMF 총재 후보군(群)은 총 15명으로 나타났는데, 사공일 박사도 그 후보군에 속해 있었다. Dominique Strauss-Kahn 총재가 사임하기 전부터 세계은행 및 IMF 총재 자리가 미국인과 유럽인들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많았다. G-20 내의 많은 국가들도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유럽인들이 정말 IMF 총재 자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미국인들이 정말 세계은행 총재 자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을까?

이번 IMF 총재직 선출 문제는 정상적인 임기만료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출신이 IMF 총재가 될지 그 결정방식이 보통 때와는 다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있다면, 신흥국들은 1~2명 정도의 후보로 압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갑자기 발생한 관계로 현재는 적어도 최소한 10명의 후보들이 있다. 어느 투표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출 건도 기존의 세력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 동안 신흥시장국들은 최고의 후보들을 내세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유럽인이 IMF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유럽의 지도자들이 한다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G-20과 다자주의 정신에 맞지도 않는 일이며 실제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사실 유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비(非)유럽인이 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실제상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 IMF가 그리스에게 너무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는가?

**답변** IMF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IMF가 한국에게는 아주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었다. 하지만 그리스에게는 통화정책이 없다. 그래서 IMF는 그리스에게 재정상황(fiscal position)을 바로잡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